

컵스 108년만의 우승



‘염소의 저주’ 풀었다

클리블랜드와 WS 7차전 연장 접전 끝 8-7 승

1승3패서 대역전극...결승타 조브리스트 MVP



1세기 넘게 우승의 기쁨을 맛보지 못했던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시카고 컵스가 마침내 한(恨)을 풀었다.

컵스는 3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 월드시리즈(7전 4승제) 7차전에서 연장 10회초 타진다벤 조브리스트의 결승타를 앞세워 8-7로 승리했다.

이로써 시리즈 전적 4승 3패를 기록한 컵스는 1908년 이후 108년 만에 우승하면서 지긋지긋한 ‘염소의 저주’와 작별하는데 성공했다. 1승 3패로 끌려가던 컵스는 5, 6, 7차전을 연거푸 잡아 1985년 캔자스 시티 로열스 이후 31년 만에 1승 3패에서 역전 우승한 팀이 됐다.

반면, 우승을 눈앞에 뒀던 클리블랜드는 안방에서 7차전을 내주며 ‘와후 추장의 저주’를 이어가게 됐다. 클리블랜드는 1948년 이후 68년 만의 우승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월드시리즈 MVP는 타율 0.357(28타수 10안타), 2타점을 기록한 조브리스트에게 돌아갔다. 조브리스트는 7차전 결승타로 팀에 108년 만의 우승을 선사한 공을 인정 받았다.

컵스는 1회초 선두타자 텍스터 파울러의 홈런으로 경기를 시작했다. 사상 첫 월드시리즈 7차전 선두타자 홈런이며, 클리

블랜드를 지탱했던 클루버의 월드시리즈 첫 피홈런이기도 하다. 반격에 나선 클리블랜드는 3회말 카를로스 산타나의 우전 안타로 동점을 만들었다.

경기 중반 분위기를 잡은 건 컵스였다. 4회초 1사 1·3루 컵스 애디슨 러셀의 중견수 쪽 짧은 뜬공 때 3루 주자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과감하게 홈에 파고들어 득점에 성공했다. 이어 윌슨 콘트라레스의 1타점 2루타로 3-1이 됐다. 5회초에는 선두타자 하비에르 바에스가 솔로포를 터트리며 클루버를 마운드에서 끌어내렸다. 컵스는 2사 후 브라이언트의 볼넷과 앤서니 리조의 우익수 쪽 안타로 5-1로 달아났다.

컵스는 선발 핸드릭스가 5회말 2사 후 볼넷을 내주자 또 다른 선발 존 레스터를 투입하는 강수를 뒀다. 하지만 김니스의 내야안타 때 로스의 1루 악송구에 이어 레스터의 폭투까지 나오며 주자 2명이 홈을 밟았다. 컵스는 6회초 실책으로 실점 빌미를 준 로스의 솔로포로 귀중한 추가점을 냈다.

8회 2사에서 컵스는 아돌프스채프먼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연전 연투에 지친 채프먼은 데이비스한테 투런포를 얻어맞는 등 3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했고 경기는 6-6 연장으로 돌입했다. 비로 잠시 경기가 중단되는 변수까지 나온 가운데, 컵스는 10회초 1사 2루 기회를 잡았다. 클리블랜드 벤치는 리조를 고의4구로 내보내고 조브리스트와 대결을 택했지만, 조브리스트가 좌익 선상 2루타로 결승점을 냈다.

/연합뉴스



3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와의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승리한 컵스 선수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목곰’ 두산 21년만에 통합 우승

〈정규시즌·한국시리즈〉

NC에 4연승하며 KS 2연패



21년 만의 통합우승을 이룬 곰 무리는 이제 달콤한 겨울잠을 준비한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는 지난 2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4차전에서 8-1로 승리, 1995년 이후 처음으로 정규시즌과 포스트시즌 동시 우승을 거머쥐었다. 두산은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 2연패 및 1995년 이후 21년 만의 통합우승을 이뤘다.

두산은 올해 정규시즌에서 KBO리그 역대 최다 승(93승) 기록을 세우고 정상에 올라 한국시리즈에 직행했다. 두산의 한국시리즈 우승은 전신 OB 시절을 포함해 이번이 통산 5번째(1982, 1995, 2001, 2015, 2016년)다. 2년 연속 우승은 처음이다. 1~4차전에서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것은 두산이 KBO리그 역대 7번째다.

김태형 감독은 두산 지휘봉을 잡고 프로 사령탑으로 데뷔한 지난해 한국시리즈 정상을 밟은 데 이어 2년 만에 통합 우승팀 감독으로 우뚝 섰다. 양의지는 4경기에서 16타수 7안타(타율 0.438)에 1홈런 4타점을 기록해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

로 뽑혔다.

당분간 꿀맛 같은 휴식을 취할 두산 선수단은 내심 두목한 우승 보너스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두산은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 포스트시즌 배당금을 받는다. KBO는 전체 포스트시즌 입장 수입 중 약 40%를 운영비로 제한 뒤 남은 60%를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4개 구단에 배분한다.

정규시즌 우승팀에 먼저 운영비를 제외한 금액의 20%를 떼주고, 나머지를 포스트시즌 1~4위 팀에 각각 50%, 25%, 15%, 10%씩 나눠 준다. 정규시즌에서 5위를 차지해 와일드카드에 진출한 KIA 타 이거즈는 배당을 못 받는다.

와일드카드(2경기), 준플레이오프(4경기), 플레이오프(4경기), 한국시리즈(4경기) 등 이번 포스트시즌 14경기에는 27만 5952명의 관중이 찾았다. 입장 수입은 약 86억3000만원이다.

정규시즌 우승팀인 두산은 이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51억8000만원의 20%인 10억4000만원을 먼저 가져간다. 또 한국시리즈 우승까지 차지하면서 20억7000만원까지 받게 됐다. 정규시즌, 포스트시즌 우승 배당금을 합치면 약 31억1000만원이다.

두산은 2014시즌 4억100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한국시리즈 우승 때 20억 원을 받는 보험에 들었다. 하지만 정규리그 6위에 머물렀다. 지난해와 올해에는 보험 계약을 하지 않았다. 대신 구단으로부터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다. 야구광으로 유명한 박정원 구단주가 과연 돈 보따리를 풀지, 푼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2년 연속 한국시리즈 챔피언이 된 두산 선수들이 2일 경남 창원 마산야구장에서 열린 2016 프로야구 한국시리즈에서 우승을 확정 지은 뒤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장골’, 정조국 종료 직전 동점골 광주 FC 잔류 확정 포항과 1-1 비기며 11위 인천에 4점차 앞서



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2016 K리그 클래식 37라운드 경기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했다. 경기 종료 직전 타진 정조국의 골이 광주의 클래식 잔류를 알리는 천금 같은 골이 됐다. 이날 11위 인천 유나이티드가 수원 삼성에 2-3으로 패하면서 4점차로 승점을 벌린 광주는 최종 전 결과에 상관없이 클래식 잔류를 확정했다.

홈 폐막전으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광주가 패하면 오는 5일 수원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강등’을 피하기 위한 속마음은 대결을 벌여야 했던 상황. 승리 또는 무승부가 필요했지만, 전반전 우위를 점하고도 선제골을 만들지 못한 광주는 후반 36분 역습 상황에서 포항 문창환에게 골을

허용하고 말았다.

그리고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주어진 4분의 추가 시간도 다 끝나가고 마지막 기회가 찾아왔다. 왼쪽에서 송승민이 골대 정면에 있던 정조국에게로 공을 띄웠다. 훌쩍 뛰어오른 정조국이 헤딩슛을 시도했고 그림처럼 포항의 골망이 흔들렸다. 그리고 그대로 경기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렸다.

시즌 19번째 골을 터트린 정조국은 그 어느 득점 순간보다 흥분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질주했다. 잔류를 예감한 선수들은 일제히 정조국을 에워싸며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다.

홈 폐막전을 극적인 무승부로 연출한 정조국은 경기가 끝난 뒤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팀의 운명이 걸린 홈 최종전이었지만 이날 정조국은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조국의 무던 움직임 속에 패배 위기까지 몰렸던 광주였

다. 그만큼 정조국의 감격은 컸다.

정조국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어떻게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득점이라서 기분이 좋다. 내 몸이 몸 같지 않았고 제대로 플레이를 못해줘서 너무 미안했다. 동료들이 자랑스럽다”며 소감을 밝혔다.

‘믿음’으로 정조국을 지켜본 남기일 감독에게도 감동적인 순간이었다.

“이제 잠을 좀 잘 수 있겠다”며 소감을 언급한 남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고 해줘서 이런 결과다. 정조국의 투입 시점과 교체 시점을 놓고 고민을 했다. 득점왕도 해야하고, 잔류도 이뤄야 해서 생각이 많았다. 어려운 선택이었다. 끝까지 믿고 기다렸는데 역할을 해줘서 고맙다. 올 시즌 우리 팀에 와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너무 잘해줬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광주 선수들은 홈 폐막전을 앞두고 사상 초유의 임금 체불이라는 사태를 겪었다.



광주 FC의 정조국(가운데)이 지난 2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포항 스틸러스와의 홈 폐막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클래식 잔류를 확정짓는 극적인 동점골을 터트린 뒤 조성준과 그라운드를 달리고 있다. <광주 FC 제공>

하지만 이들은 늘 그렇듯 포기하지 않은 축구로 또 다른 역사를 만들었다. 클래식 잔류의 중심에 있던 정조국은 목표했던 것을 이룬 뒤에야 조심스레 다른 말을 꺼냈다.

국내 최고의 클럽 중 하나로 꼽히는 FC 서울의 간판 스타로 뛰었고 해외 무대에도

진출하며 좋은 환경에서 축구를 해왔던 정조국은 “그동안은 변명이 될까봐 단 한 번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는데 우리 후배들과 스태프들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서 시즌을 보냈다”며 “우리 후배들이 자랑스럽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후

배들을 위해서 시민구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면 좋겠다. 광주가 야구로 유명한데 야구와 함께 축구도 같이 가면서 윈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간절한 마음을 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